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감세, 관세 정책 등 트럼프발 정책 노이즈로 인해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7일(수) 미국 증시는 장 초반 미 하원의 예산 결의안 처리로 감세 기대감 반영되며 상승 출발하였으나, 이후 엔비디아 실적 대기 속 트럼프의 유럽연합(EU) 관세 부과 발언 등으로 인해 상승폭 반납하며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다우 -0.43%, S&P500 +0.01%, 나스닥 +0.26%).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감세, 관세 등 트럼프 정책발 이슈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이며 높은 변동성 장세를 연출. 최근 미 시간대,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등에서 나타난 소비 심리 부진이나 트럼프 정책이 미칠 물가 상방 압력을 우려하는 연준위원의 발언들도 결국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진 내재적 예측 불가능성과 이에 따른 향후 정책적 불확실성에 연동되고 있다고 판단.

실제로, 전일 미 증시는 선 관세 정책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 기대감으로 장 초반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 전일 미 하원은 앞으로 10년간 세금 4.5조와 정부 지출 2조 달러를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 해당 예산 결의안은 세부적으로 어느 부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으나, 감세 정책이 결국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

그러나, 이후에 트럼프가 유럽연합(EU)에 자동차를 비롯한 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되고, 유럽이 이에 대해 보복 의사를 나타내자 시장은 재차 하락세로 전환. 다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 행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관세 위협 행위는 여전히 협상 지렛대 수단이 주 목적이라고 판단. 실제로, 30일 간 유예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다가오는 3월 초 시행되어야하나, 이 날 기자회견에서 4월 2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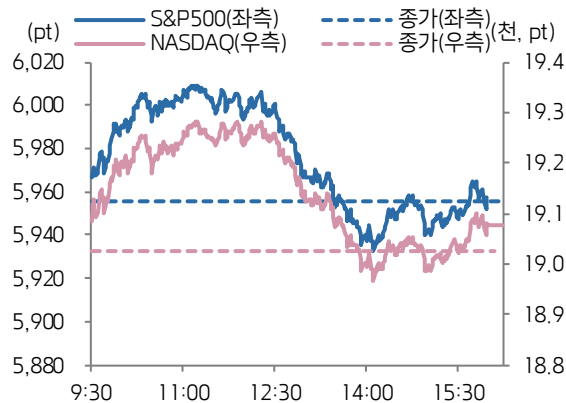
한편,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었던 엔비디아 4분기 실적은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하며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EPS 0.89달러 vs 컨센서스 0.84달러, YoY +71%, 매출액 393억 달러 vs 컨센서스 383억 달러, YoY +78%). 다만, 차분기 가이드런스 상 마진율이 71.0% 안팎으로 컨센서스인 72.1%를 하회. 현재 켄스황 CEO가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언급하며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 1%대 상승중.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며 증시에 중립 이상의 재료로 작용한 가운데 차후 시장의 관심사는 28일(금)에 발표될 PCE 지표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 1월 PCE는 PPI의 세부 품목 내 PCE 반영 항목이 하락하며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CE 지표가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해볼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발 소비 심리 부진,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종목들의 급락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했으나 이후 제약, IT 등의 금리 하락 수혜주 중심으로 반등함에 따라 양 지수는 낙폭을 반납하며 상승 마감 (코스피 +0.41%, 코스닥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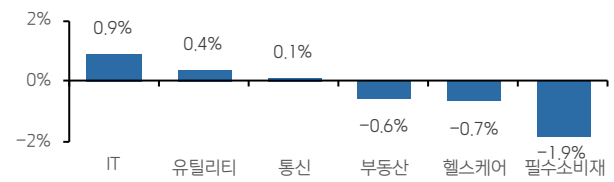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호실적,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현재 4.25%) 등을 반영하며 전일에 이어 IT를 비롯한 금리 하락 수혜주 중심의 강세 지속될 것으로 판단. 특히, 최근 국내 증시는 주도 수급 주체로서 연기금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금일 국내 증시도 최근 흐름과 연동하여 양호한 흐름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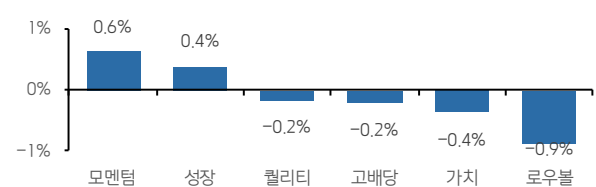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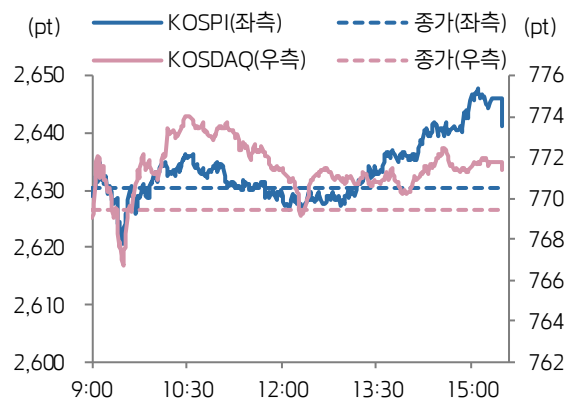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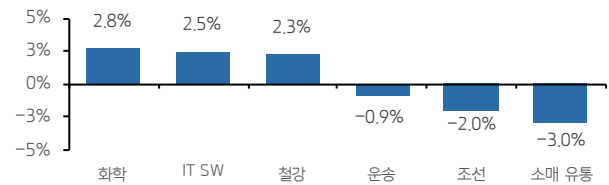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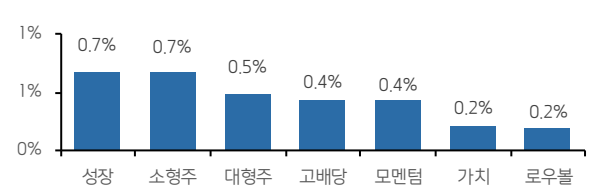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40.36	-2.7%	-3.91%	GM	48.46	+3.75%	-9.03%
마이크로소프트	399.73	+0.46%	-4.97%	일라이릴리	915.01	+1.46%	+18.73%
알파벳	172.73	-1.53%	-8.75%	월마트	96.20	-1.53%	+6.47%
메타	673.70	+2.46%	+15.06%	JP모건	258.79	+0.54%	+8.52%
아마존	214.35	+0.73%	-2.3%	엑손모빌	109.46	-0.25%	+2.67%
테슬라	290.80	-3.96%	-27.99%	세브론	155.14	-0.82%	+8.3%
엔비디아	131.28	+3.67%	-2.24%	제너럴일렉트릭	96.20	-1.5%	+6.5%
브로드컴	212.94	+5.13%	-8.15%	캐터필러	342.58	+0.06%	-5.22%
AMD	104.74	+0.75%	-13.29%	보잉	173.04	-2.93%	-2.24%
마이크론	97.71	+4.82%	+16.1%	넥스트에라	71.01	-0.4%	-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41.09	+0.41%	+10.07%	USD/KRW	1,433.80	-0.04%	-2.61%
코스피200	349.31	+0.51%	+9.91%	달러 지수	106.55	+0.22%	-1.79%
코스닥	771.41	+0.26%	+13.75%	EUR/USD	1.05	-0.3%	+1.24%
코스닥150	1,312.99	+0.25%	+16.21%	USD/CNH	7.27	+0.16%	-0.97%
S&P500	5,956.06	+0.01%	+1.27%	USD/JPY	149.12	+0.06%	-5.14%
NASDAQ	19,075.26	+0.26%	-1.22%	채권시장			
다우	43,433.12	-0.43%	+2.09%	가격	DTD(bp)	YTD(bp)	
VIX	19.10	-1.7%	+10.09%	국고채 3년	2.595	-0.5bp	+0bp
러셀2000	2,174.17	+0.19%	-2.51%	국고채 10년	2.753	-4.2bp	-11.8bp
필라. 반도체	4,990.82	+2.09%	+0.22%	미국 국채 2년	4.072	-2.3bp	-17bp
다우 운송	15,861.07	-0.3%	-0.22%	미국 국채 10년	4.252	-4.2bp	-31.7bp
상해종합	3,380.21	+1.02%	+0.85%	미국 국채 30년	4.507	-4.7bp	-27.4bp
항생 H	8,792.89	+3.46%	+20.62%	독일 국채 10년	2.433	-2.5bp	+6.6bp
인도 SENSEX	74,602.12	+0.2%	-4.53%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527.99	+1.47%	+12.91%	WTI	68.62	-0.45%	-3.16%
MSCI 전세계 지수	866.74	-0.44%	+3.02%	브렌트유	72.53	-0.67%	-2.83%
MSCI DM 지수	3,814.35	-0.36%	+2.87%	금	2,930.60	+0.4%	+9.92%
MSCI EM 지수	1,122.38	-1.18%	+4.36%	은	32.27	+1.4%	+10.36%
MSCI 한국 ETF	57.81	+0.45%	+13.6%	구리	454.00	+1.31%	+12.75%
디지털화폐				BDI	1,039.00	+3.69%	+4.21%
비트코인	83,448.87	-5.92%	-10.95%	옥수수	494.00	-0.05%	+6.07%
이더리움	2,299.92	-8.43%	-31.27%	밀	579.25	-1.45%	+2.98%
				대두	1,041.50	-0.69%	+1.88%
				커피	375.20	-0.19%	+19.1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2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